

■ 2026 새해설계 정기명 여수시장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로 새로운 도약 매진”

진모지구 주행사장 6월까지 조성·콘텐츠 준비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선대응… 경쟁력 강화

전라선 고속화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집중

“석유화학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산업위기 극복의 희망을 키웠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여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신년사에서 “시의 모든 행정력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행사 준비에 매진한다. 진모지구 주행사장은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8개 전시관별 특색 있는 콘텐츠로 섬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개도와 금오도 부행사장은 섬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거문도에는 K-관광 섬의 활력을 더하고,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섬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석유화학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보통 교부세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 것처럼,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에 선제 대응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운전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인력양성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골목경제에는 제감형 소비 진작으로 활력을 더 하겠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55억원 규모의 여수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듯, 올해도 지역상품권 특별할인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경영상담부터 자금 연계, 판로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6월까지 여수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복합 해양레저관광의 대표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수박물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

며 빠른 시일 내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옛 미평역 문화예술시설을 새롭게 개관해,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선소테마정원은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가꾼다.

진남관에는 빛과 영상을 더한 미디어아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전남도와 협력해 전라좌수영성 사적 지정과 복원에 나선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공모에 시가 최종 선정돼 무술목 관광단지와의 연계해, 2030년까지 1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람회장과 경도, 무술목 등의 5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경도관광단지 진입도로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화양지구와 철린지파크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7년 일례면 브릿지 개통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양관광 드라이브 코스로 조성한다.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기회의 도시로 만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되는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계획을 지역의 기회로 삼아, 올춘 제2산단 조기 조성을 추진하고, 미래 선도산업 중심의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이어간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 인재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롭게 운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인다.

시 최초 어린이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여수 꿈바다어린이도서관’을 9월까지 개관하고, ‘생각키움 놀이터’도 점차 늘려 갈 계획이다.

시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연내 소재지구 택지 개발 공사를 마무리하고, 울촌배후도시 조성사업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화태~백야 간 도로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해 동서 연결망을 완성한다.

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전라선 고속화 철도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으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다”며 “합쳐져 달리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곡성 ‘미스터공기’, 토란 디저트로 소비자 공략

9일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서 팝업스토어 운영

곡성 로컬 디저트 브랜드가 토란으로 만든 프리미엄 디저트로 도시 소비자의 입맛 공략에 나선다.

곡성 ‘미스터공기’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팝업스토어는 곡성 토란으로 만든 프리미엄 로컬 디저트를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곡성 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지역 브랜드 인지

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군은 청년창업 브랜드 성장 사례 공유를 포함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 모델을 알리며, 지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스터공기”는 2020년 도에서 곡성으로 귀촌한 청년 창업가 김빛나 대표가 곡성 토란을 활용해 선보인 로컬 디저트 브랜드다.

김 대표는 곡성에서의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중, 지역 농산물이 곡성 토란의 가



능성에 주목해 디저트 사업을 구상하고, 2023년 곡성토란도란농촌융복합사업단이 주관한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해 2024년 곡성을 대표하는 로컬 디저트

‘토란타르트’를 출시했다.

토란타르트는 여행객과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하고 선입견이 있던 곡성 토란을, 대중적으로 친숙하고 맛있다는 인식이 강한 타르트 디저트에 접목한 프리미엄 디저트로, 지역 특색과 고급스러운 콘셉트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메뉴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토란 밀크티’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빛나 대표는 “농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롯데백화점 광주점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곡성 토란과 곡성이라는 지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광양,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공모 13~16일 접수…3월부터 2년간 지정·운영

광양시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기간이 오는 3월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광양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년간 평일 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평일 오후 6~11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며 아동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의료기관 가운데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병·의원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운영형태는 단일 병·의원이 주 7일 운영 하는 일반운영, 평일에 한해 주 3일 이상 운영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할 경우 최소 주 2일 이상 운영하는 일부요일운영, 인접 병·의원이 당번제로 주 7일 운영 하는 연합운영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먼저 광양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운영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2월 중 전남도에서 심사 결과와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3월부터 2년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필수적이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고흥군은 새해 시작과 함께 여행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인센티브는 내외국인 관광객 8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거나, 버스 1대당 5만원 상당의 고흥 특산품을 증정한다. 숙박 관광의 경우는 1인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행사·학교는 관광일 기준 1월 전까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고흥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과 함께 우주발사전망대와 천문과학관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전액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관광객의 체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고흥,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

8인 이상 유치 여행사·학교 대상…1인당 최대 3만원



## 순천 청년공동체 ‘7AM’ 상인 인터뷰 기록물 제작

순천시 청년공동체 ‘7AM’이 문화의 거리 상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만화 형식의 책자를 제작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5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의 거리 상인들의 삶의 기억,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단순한 상권 소개를 넘어 원도심이 지닌 생활문화를 담아낸 기록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청년공동체 7AM은 상인 개개인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상인과 가게의 풍경, 일상의 순간을 일러스트와 만화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 특히 문화의 거리에 서 추억과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문화의 거리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책자는 향후 전시, 공유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원도심 상인의 이야기를 담은 원도심 기록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운권 청년공동체 7AM 대표는 “문화의 거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말과 글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공감을 일러스트와 만화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여전 상인회와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장흥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

## 장흥, 갯벌 활용 어촌·해양 관광 활성화 추진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 지정’ 내년까지 연장  
군, 갯벌 기반 해양수산 경쟁력·브랜드 가치 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장흥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

이번 결정은 장흥 갯벌의 생태적·산업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장흥군은 특구 지정 연장이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특구 지정 연장이 지역 해양수산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질이 우수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장흥 갯벌은 2008년부터 18년간 김 양식 시 산을 사용하지 않아 타지역 대비 유기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우수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갯벌은 단순한 어장을 넘어 환경·경제·미관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이다.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 소득의 기반이 되며,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써 미래 가치까지 지닌다.

장흥군은 이러한 갯벌의 다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갯벌 생태 산업 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특구 연장을 통해 장흥군은 갯벌 보전 및 복원 사업, 친환경 수산업 육성, 어장 환경개선, 어촌·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정영수 기자